

# 정신장애인의 ‘더빙 프로젝트’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 - “나의 목소리를 찾아서” -

정 현 주\*

이 은 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서울사이버대학교 청소년복지전공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식개선사업 ‘더빙 프로젝트’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어떤 경험과 변화를 겪고 있는지 이들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이해하고, 그 과정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1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질적연구를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당사자들은 ‘더빙 프로젝트’ 참여경험의 의미를 ‘나의 꿈을 찾아가는 회복여행’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 자아인식과 자존감의 향상, 참여자간 연대감의 증진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참여경험이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속에서 미래를 향한 회복을 만들어 가는데 유용함을 증명하고 있다.

주요어 : 사회적 낙인, 사회적 역할 가치화, ‘더빙 프로젝트’, 일반적 질적연구

---

본 논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Y기관에 의해 수행된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교신저자: 정현주/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부교수/(01133)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Tel: 02-944-5134/E-mail: hj8724@isc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 인구의 5명 중 1명<sup>1)</sup>, 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정신질환은 현대사회에서 흔한 건강문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낮은 삶의 질, 그리고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김요완, 정현주, 2019).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약 26.6%로 약 1천만 명 정도에 달하는 인구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18).

정신장애인은 인지적 기능의 손상과 더불어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양성증상, 사회적 고립이나 무감동, 의욕저하 등의 음성증상(배은경, 안효자, 2016), 그리고 우울 및 불안 등의 다양한 잔여증상(정재원, 김성재, 2017)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정표현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짧은 문장조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거나 감정의 동요를 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일상생활, 직업, 사회적 기능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기능손상을 가져오고, 질병의 특성상 만성화 과정으로 이어진다(오인옥, 김선아, 2015).

이렇듯 정신장애인은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처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2차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낙인은 ‘두 번째 질환’으로도 묘사된다(Huggett et al., 2018, p.380). 이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유발된 ‘낙인의 내면화’로 자

기존증감과 희망(Link & Phelan, 2001; Yanos, Toe, Markus, & Lysaker, 2008), 자기효능감(Kleim et al., 2008), 그리고 주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위한 자신감(Perlick et al., 2001)이 낮아지고 치료를 기피하거나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등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낙인은 주거와 고용의 기회, 고등교육, 보험, 사법, 혹은 아동복지 체계 등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Charbonneau, 2007; Corbiere, Samson, Villotti, & Pelletier, 2012),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삶의 목적을 성취하고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회들을 앗아가 버린다. Sayce(2003, p.626)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은 ‘악’으로 간주되고, 정신장애인들은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이며 그들의 의견과 주장은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의 진단으로 환자역할을 수용하게 되면 정당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기회가 박탈되고,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며 ‘우리’와 분리된 ‘그들’이 되는 낙인과정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회복의 관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Smith, 2000; Tew et al., 2012), 전통적인 의료모델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치료효과와 더불어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회복은 정신장애인이 환자에서 시민이라는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인 참여로의 여정’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이 지지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수용하는 것이다. 김문근(2010)에 의하면, 회복모델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프로그램에서 자기 삶의 관리자로서(Stromwall

1) 영국의 경우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약 44%가 생애 동안에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15), 대략 정신장애인 10명 중 9명이 낙인의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Corker et al., 2016).

& Herdle, 2003), 치료나 변화의 주체로서(Stern et al., 1999), 그리고 서비스의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Dickerson, 1998).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낙인에 대처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은 전통적인 의료접근과 통합하여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도 여전히 적고 제한적이다. 또한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의 초점을 보면, 낙인이 내면화된 정신장애인의 태도변화와 이러한 낙인을 초래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이라는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의 접근방법이 대부분이며 제도적이며 정책적인 대처는 미흡하다. 즉, 정신장애인들의 임파워먼트나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의 보장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Y 정신재활 시설에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고 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더빙 프로젝트'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경험의 맥락과 의미를 그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 그리고 치료과정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견해를 적절히 표출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발음, 발성 훈련과 연기연습을 통해 성우라는 직업의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더빙 프로그램을 UCC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대항하는 당사자들의 경험이 자기 정체성의 재구축과 사회적 재참여, 나아가 회복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하는 것은, 회복모델과 임파워먼트 접근이 가진 가치의 재확인과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 1) 낙인의 개념

정신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일상적인 낙인은 그들의 회복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Wahl, 1999, p.467).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은 낙인과 차별의 경험으로 실망과 좌절, 상처, 분노, 그리고 낮은 자기존중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며, 이는 그들의 고용, 삶의 기회와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치료행위로 파급되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즉, 낙인은 제도적, 공공적,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내적으로 관련된 과정을 형성하는 복잡한 사회적 구성물이다(Anderson & Austin, 2012; Corrigan & Watson, 2002).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낙인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1963년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Goffman, 1963)이 “개인의 손상된 인격적 특성”으로 낙인을 정의하고, 그것은 사회적 환경에서 양산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그 개인을 황폐화하고 해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에 기원을 두고 있다. 고프만은 낙인이 특히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신병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고프만의 낙인 개념은 학문적으로 큰 의의를 가짐에도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본질적 특성상 미시 사회학과 심리학의 연구방법론의 활용으로 인해 사회에서 낙인이 어떤 목적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탐구에는 한계가 있었다(Parker & Aggleton, 2003; Tyler & Slater, 2018).

더불어 낙인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낙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두려움, 편견, 그리고 차별로 특징 지워진다(Corbiere et al., 2012, p.1). Corrigan(2000)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은 인지적 요소로서 고정관념(stereotype)과, 부정적 정서, 태도를 뜻하는 편견(prejudice), 그리고 구체적인 차별행위(discrimination)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일종의 인과적 관계가 있다고 한다. 낙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면적 고려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낙인의 극복방안이나 낙인방지 노력들의 방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자들은 낙인의 생성과 유지에 사회구조적, 상호작용적, 심리학적 요인의 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된다고 인정하고(Link & Phelan, 2001; Link, Cullen, Streuning, Shrout, & Dohrenwend, 1989), 성공적인 낙인방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상호 개인적, 체계적 수준에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tuart, 2008).

## 2) 낙인에 대한 연구동향

낙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낙인에 대한 인식, 태도, 행위에 대한 연구와 낙인이 정신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Charbonneau, 2007; Corrigan & Kleinlein, 2005; Corrigan & Matthews, 2003; Lauber, 2008; Rutman, 1994; Stuart, 2004)이다. 둘째는 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이며 개인적 차원의 방안과 그것이 정신질환의 개선이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Hocking, 2003; Sadow & Ryder, 2008; Stuart, 2008)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박종호, 이현심, 2019; Cohen & Struening, 1962; Taylor & Dear, 1981)은 과거에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지지,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1950년에서 1996년 사이에 무려 25배나 증가하였다는(Phelan, Link, Stueve, & Pescosolido, 2000) 연구결과를 볼 때, 인식변화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선부른 측면이 있다. 더구나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접촉을 통해 과거보다 더 많

은 사회적 거부, 두려움, 부정적인 기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Neff & Husaini, 1985; Purvis, Brandt, Rouse, Vera, & Range, 1988; Riskind & Wahl, 1992).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고용주들과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Evans & Repper, 2000), 회복가능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낙인과 동일한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Angermeyer, Schulze, & Dietrich, 2003; Charbonneau, 2007). 이러한 정신건강전문가들 및 가까운 지지집단에서의 낙인화 태도는 정신장애인들이 낙인을 내면화하여 자기혐오와 자기비난 등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무력감과 절망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Charbonneau, 2007; Corbiere et al., 2012). 요약하면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접촉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낙인의 인식은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치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낙인의 극복방안으로 사회적 편견에 대한 항의,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경험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Corrigan & Penn, 1999). 이러한 낙인해소 방안들이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다(Corbiere et al., 2012; Cook & Wang, 2011). 사회적 항의 전략은 부정적인 태도의 감소에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의 촉진에는 효과가 미약하며(Corbiere et al., 2012), 사회적 반발이나 항의 대상자의 저항 문제도 있다. 교육은 대중의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지만(박영근, 백상수, 2019; 이미아, 2020; 임지은, 이성규, 전준희, 2018), 행동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이민화, 서미경, 유숙, 2018; Stuart, 2005), 낙인이나 편견을 환기하는 측면도 고려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접촉은 부작용이 가장 적으며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지

만(이민화, 서미경, 유숙, 2018; Corrigan & Penn, 1999), 시간 소비가 많고 비용 효과적이지 않으며 소수의 집단에만 적용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세 가지의 접근 외에 임파워먼트 접근과 사회적 역할 가치화 접근이 강조되어 적용되고 있다(김문근, 2010; Burhouse et al., 2015). 임파워먼트 접근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순응적인 환자 역할 대신에 서비스 제공, 자기결정, 집단과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기여, 서비스에 대한 통제와 관리 등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소비자 역할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김문근, 2010; Chamberlin, 1997; Hacking, Secker, Spandler, Kent, & Shenton, 2008; Parr, 2005; Sapouna & Palmer, 2016; Slazer, 1997; Stromwal & Herdle, 2003). 사회적 역할 가치화 접근에 의하면, 개인이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이 사회 속에서 개인의 가치를 좌우하는 매개체로 기능하므로,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의 부여를 통해 낙인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기개념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된다(김문근, 2010; Forresster-Johns & Barnes, 2008; Watson, Corrigan, Larson, & Sells, 2007).

국내의 연구에서도 직업적 역할이나 학생역할 등 대안적 역할이 있을 경우 정신질환자 역할에 동반되는 사회적 낙인 지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성준모, 1997; 한경례, 김성완, 이무석, 2002), 정신장애인 보호작업이나 임시취업처럼 매우 제한적인 직업적 역할을 지니는 경우에도 사회적 편견 인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김문근, 2009). 김문근(2010)에 따르면, 정신건강 체계 내에서 임파워먼트 접근이나 직업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게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인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 3) 새로운 회복의 관점

정신건강서비스에서는 회복모델의 적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Smith, 2000; Tew et al., 2012). 회복 모델에 입각한 연구들(김근식, 나숙희, 2005; Barry, Zeber, Blow, & Valestein, 2003; Chamberlin, 1997; Deegan, 1988; Jones, Hardiman, & Carpenter, 2007; Mancini, 2007; Nelson, Lord, & Ochocka, 2001; Sapouna & Palmer, 2016)은 연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들이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정체성의 변화, 자기효능감의 증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증가, 동료·가족들과의 지지적이며 동등한 관계형성,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증가를 보고하였다. 회복모델은 의료모델에 따른 증상의 감소 대신에 특정 질병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치 있는 삶을 재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사회적 역할과 긍정적 자기정체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Tew et al., 2012). 즉,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것이 회복의 중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Petty & Triolo, 1999). 이러한 회복의 개념은 시민권, 권리, 의미 있는 역할, 책임성, 결정, 잠재성, 지지와 같은 정신장애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으로 재정의된 것이다(Bungay & Clift, 2010; Crowe & Taylor, 2006; Sapouna & Palmer, 2016). 여기서 고려되는 회복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자기 삶의 중심적인 작동자로서 기능하며, 모든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Ryan, Ramon, & Greacen, 2012). 환자에서 시민으로의 역할 이동은 실천의 중심에 개인적인 선택, 사회적 포용, 시민권과 인권을 놓음으로써, 의료모델의 체계모니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Sapouna & Palmer, 2016).

또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약물에 의한 증상치료만이 아니라, 집단을 활용한 접근이 다양한 접근 방법 중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김근식, 나숙희, 2005). 특히 미술이나 음악치

료 같은 창조적 예술 프로그램은 문화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편적이고 단조로운 흑백의 삶을 살고 있는(심경순, 유숙, 2017, p.88) 정신장애인들의 회복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김근식, 나숙희, 2005, p.27; Goldie, 2007; Hacking et al., 2008; Hui & Stickley, 2010; Parr, 2005; Sapouna & Pamer, 2016). 국내의 연구들은(김근식, 나숙희, 2005; 심경순, 유숙, 2017; 윤상훈, 이해은, 2012; 한지연, 심경순 2016)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참여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예술치료 및 예술적 활동을 매개로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김근식, 나숙희(2005)는 음악치료 기법을 활용한 노래를 매개로 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8명의 재가 정신분열장애인의 음성증상 변화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심경순, 유숙(2017)은 정신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 문학자조모임의 경험과 의미의 본질을 연구한 결과, 문학자조모임은 작가로서 새로운 삶을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며, 지역주민과의 함께 하는 문화적 소통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예술적 활동을 매개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적 역할수행을 도모하고자 적용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직업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구성원들이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예술치료 전문가들과의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당사자들이 새로운 자기개념의 형성과 자기존중감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적인 활동에서 품게 된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가 의료모델이 가진 엄격성 및 수동성과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Sapouna & Pamer, 2016).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실천영역에서 예술 혹은 대안적 활동 프로그램이 도구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의료모델

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통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예술치료나 예술 활동을 매개로한 음악, 미술, 영화 등 다양한 차원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접근의 경우 일시적인 프로그램의 구조적 틀에 국한되어 일상생활에서 항상 수행되는 전략들이 아니므로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성이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와 더불어 지역과 기관의 사정이나 비용 등의 이유로 보다 폭넓은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전통적인 의료모델에서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역할의 참여와 회복에서 점점 멀어지며 고립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임파워먼트와 회복모델에 입각한 정신장애인들의 가치있는 삶의 재구축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모델의 적용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역할의 재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효과적이며 타당한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 일부 예술을 접목한 연구들이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소수이며,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기에 정신장애인들의 견고한 임파워먼트와 새로운 정체성 구축을 위한 접근으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예술체험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아닌 2년 이상의 성우라는 전문적인 직업체험과 사회적 역할의 준비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더빙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들이 회복이라는 과정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2년 6개월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인 ‘더빙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이들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이해하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그러한 경험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정신장애인들은 ‘더빙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은 그들의 회복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질적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들이 ‘더빙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들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이해하고, 그 과정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 질적연구는 해석주의라는 동일한 패러다임 안에서 지적기반을 공유하고, 각 접근법의 다양한 방법들을 절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더빙 프로젝트’ 참여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식론적이나 존재론적 전제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에 임하면서(김인숙, 2016에서 재인용; Snape & Spencer, 2003), 참여경험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포착하여 드러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 연구참여자들이 놓여 있는 삶의 조건과 맥락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일반적 질적연구는 전체적인 관점(holistic)에서 연구참여자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Padgett,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더빙 프로젝트’ 사업의 참여자들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이들의 회복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색하였다.

### 2. 연구참여자와 연구윤리 준수과정

#### 1) 연구참여자와

본 연구의 참여자는 U시에 위치한 Y 정신재활시설에서 진행한 ‘더빙 프로젝트’ 사업의 활동에 참여한 10명의 정신장애인이다. Y시설에서는 U시 인근의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홍보문을 발송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발음이 어느 정도 명확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본 프로젝트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확실한 총 10명을 선정하고, 참여의사를 재확인 후 동의서를 받았다.

Y시설에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신장애인의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인식개선사업 ‘더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더빙 프로젝트’는 정신장애인 회복지원 및 역량강화사업,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사업, 정신질환 인식개선 교육 및 UCC 홍보사업을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더빙 프로젝트’에서는 성우교육과 더빙활동을 통해 당사자들의 감정표현을 증진하고 나아가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장기간 협동작업과 당사자들의 지지모임을 통해 참여자간 연대감과 성취감을 고취하였다. 한편 다른 예술작품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발표를 하거나 무대에 서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나, 목소리로 표현되는 더빙 작품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더빙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애니메이션 영상은 향후 초등복지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더빙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6월에서 9월까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더빙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해온 경기도 U시에 소재한 Y 정신재활시설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1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인터뷰 중반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심층인터뷰를 대면으로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구글 미트(Google Meet)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인터뷰라서 연구자는 더 많은 준비를 하였다. 먼저 질문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었고, 본격적인 연구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구자와의 라포형성과 신뢰감을 주기위해 연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심층 인터뷰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초반에는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비대면 인터뷰가 별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기관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당사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활동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또한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미리 배포하여 연구참여자들이 면접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면접 질문지는 도입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질문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면접 당일의 상태, 현 기관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둔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질문은 연구참여자들의 ‘더빙 프로젝트’ 사업의 경험, 그 과정에서 느끼는 변화과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무리 질문에서는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 궁금한 점에 대한 대답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기관 이용기간	진단명
A	남	35	2년	조현병
B	여	47	5년	양극성장애
C	남	41	6년	조현병

(계속)

참여자	성별	연령	기관 이용기간	진단명
D	여	28	6년	우울증
E	남	49	9년	조현병
F	남	47	5년	조현병
G	남	50	7년	뇌병변, 우울증
H	남	43	10년	조현병
I	남	38	9년	조현병
J	남	44	2년	조현병

## 2) 연구윤리 준수과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첫째, 연구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참여자들에게 연구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고지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였다.

둘째, 참여자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 외에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참여자의 신분은 가명으로 처리되어 노출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인터뷰 도중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인터뷰가 끝난 후라도 원하지 않으면 연구에서 제외할 것을 공지하였다.

넷째, 자료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녹음된 파일은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연구가 끝난 후에는 폐기된다고 고지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심층인터뷰가 끝난 후,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녹음한 자료를 모두 전사하였다. 그 외에 ‘사례관리지’, ‘더빙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본 기관의 사업계획서, 기관의 홈페이지나 기관지 등의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과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더빙 프로젝트' 결과보고서의 질적 자료를 2인의 연구자가 재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연구자들은 자료를 재분석하고 연구결과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일반적 질적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 주제를 이끌어내는 주제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즉, 자료분석의 초기에 자료에서 패턴을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질적연구의 다양한 접근방법에 전제되어 있는 공통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재구성하는 자료분석 방법 즉, 귀납적 주제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김인숙, 2016).

귀납적 주제분석은 자료로부터의 출현을 자료분석 전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포괄분석, 의미단위분석, 패턴분석, 범주분석, 주제분석의 5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자료 전체의 구조나 개략적 스토리를 찾는 포괄분석을 거치고, 다음으로 원자료들을 줄단위, 사건단위별로 해체하고 쪼개어 보면서 자료의 조각들을 의미단위(meaning unit)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전사자료를 줄단위로 해체하여 의미단위를 명명화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그 후에도 원자료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의미단위들은 지속적으로 추가하였다. 그 후 찾아낸 의미단위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을 감지하고 숙고하는 패턴분석을 거친 후, 이어 패턴들을 분류하는 작업인 범주분석을 통해 범주와 속성을 발견하고 하위주제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하위주제로 묶인 범주들을 연결하여 주제를 찾아내는 주제분석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연구자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중시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자료분석의 전 과정

에서 본 연구의 주제가 심층적으로 드러나도록 지속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sup>2)</sup>

####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과정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의 질적연구 준수사항을 지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적용성(application)의 확보를 위해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통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층면접 시 참여자의 이야기를 연구자가 요약,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정확한 기록을 위해 녹음을 하였다. 또한 일관성(consistency)을 위해 '더빙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기관장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담당 정신건강간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의미들을 비교하는 자료의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다원화와 자료의 삼각측정방법을 통해 연구조사의 결과와 해석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찰, 명명, 해석에서의 일관성 있는 절차를 담보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심층면접만이 아니라 본 기관의 사업수행 시 적극적인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참여자와의 라포형성을 꾀하며, 이들의 말이나 행동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한다(Boyatzis, 1998). 이는 참여자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숙지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기관의 정신건강전문가와도 밀접하게 이야기하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의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되었기에, 본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관의 다양한 자료들을 숙지하고

2) 본 2인의 연구자들은 '더빙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보고서의 질적자료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을 중시하였다. 즉, 자료분석의 전 과정을 다시 실시하여 의미단위의 재명명화, 패턴분석, 범주분석, 주제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처음의 질적 자료 중 본 연구의 주제와 맞지 않는 자료들은 제외하였다. 이때 연구자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중시하였다.

기관의 정신건강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 III. 결과

본 연구에서는 ‘더빙 프로젝트’ 사업의 참여자들이 ‘더빙 프로젝트’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참여자의 시각과 관점 아래 그 과정과 맥락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1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7개의 주제와 18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총 75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7개의 주제로 ‘더빙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 ‘내 삶의 변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 내고 싶은 마음’, ‘가족이 되어가다’, ‘나의 변화를 추동해 내는 주위 사람들’, ‘나의 꿈을 찾아가는 회복여행’이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자세한 분석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2> 분석결과

주제	하위주제
더빙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못 다 이룬 꿈으로의 도전
	나를 사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	전문가의 훈련으로 거듭나다
	‘같이 뭉치느’ 새로운 경험들
	낯설고 힘든 과정
내 삶의 변화	생각이 변하니 행동이 변한다
	증상이 호전되다
	자아가 단단해지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 내고 싶은 마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

(계속)

주제	하위주제
가족이 되어가다	서로에게 친밀함이 더해지다
	일상을 공유하며 가족이 되어가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
나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주위 사람들	나를 성장시키는 고마운 사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이웃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주는 가족
나의 꿈을 찾아가는 회복여행	내 삶의 변화와 선순환
	낯설고 힘들었지만 나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

#### 1. 더빙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연구참여자들의 ‘더빙 프로젝트’ 참여 동기와 기대는 각각 ‘못 다 이룬 꿈으로의 도전’, ‘나를 사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분석되었다. 2가지 하위주제와 11개의 의미단위를 ‘더빙 프로젝트에 참여하다’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 1) 못 다 이룬 꿈으로의 도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더빙 프로젝트’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오디션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정신장애 발병 이후 무의식 속으로 눌러왔지만 사실은 발병 이전부터 꿈꿔왔던 소망이 있었음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었다. 목소리 연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 연기가 되고 싶었던 소망, 좋아하던 성우에 대한 동경 등 그 마음은 다양했고, 일부 참여자들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인으로 자리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고 도전을 해 본다는 뜻에서 ‘못 다 이룬 꿈으로의 도전’이라고 범주화하였다.

제가 고등학교 때 TV를 보는데 성우분이 멋있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 보고 어... 멋지다. 멋지구 딱 필이 와요... (중략) ... 그런데 저두 성우를 연습하면 이렇게 뭐..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 가지구...(E4)

## 2) 나를 사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

연구 참여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이 조금 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더빙 프로젝트'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쫄쫄이라도 정신장애인들이 남한테 말할 수 있는... (중략)... 정신장애인들이 그런 말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해봤자 손가락질이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인식개선을 통해서 정신장애인들이 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E64)

## 2.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연구 참여자들은 그동안 정신재활시설에서 경험해왔던 재활서비스와는 매우 다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보컬트레이닝, 발성연습, 성우교육, UCC 영상제작 등 더빙작품 제작을 위한 활동과, 자조모임을 통한 연대감 형성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더빙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여기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더빙 프로젝트'의 활동경험 과정을 '전문가의 훈련으로 거듭나다', '같이 뭉치는 새로운 경험들', '낯설고 힘든 과정'이라는 총 3개의 하위주제와 11개의 의미단위로 분석하였으며, 3개의 하위주제들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들'이

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 1) 전문가의 훈련으로 거듭나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보컬트레이닝, 성우연습과 같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 훈련 담당 선생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단순히 기술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좀 더 나 자신이 성숙해지는 전반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선영(2004)에 의하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환경 안에서 정신장애인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를 의도적으로 대하는 것, 긍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의 분위기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가들의 편견 없는 태도와 진정성에 기반한 당사자들과의 상호작용은 정신장애인들의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의 훈련으로 거듭나다', '전문적인 장소에서 전문적인 녹음을'이라는 의미단위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전문가의 훈련으로 거듭나다'라는 하위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보컬 트레이닝이요? 아.. 여우와 두루미.. 여우2 했는데요.. 더빙 선생님이 여기쯤에서 소리를 내면 된다.. 그렇게.. 그래서 더빙에 넣어봤더니 쫄 되더라구요.. 또 드라마 볼 때 보면 연기를 해야하잖아요.. 근데 TV에는 표정, 뭐 행동, 말투, 다 맞게 해야 되는데.. 더빙두 그렇게 목소리로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E29)

SOO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께서 많은 걸 배웠어요..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하며 어떤 감정으로 내야 되며.. 또 그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제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예.. 성숙할 수 있는 모습을 배웠죠.(F7)

## 2) ‘같이 뭉치는’ 새로운 경험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조모임에서 돌아가며 리더 역할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회원들은 묵묵히 따라주는 ‘같이 뭉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함께 뭉치는 경험’은 사회적으로 차별당하며 배제되어왔던 당사자들이 고립된 자신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상호간 연대와 지지를 도모하고(이근희, 2014) 회복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심경순, 유숙, 2017).

*제가 더빙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1차로 회장하고 주\*연씨가 부회장 하시고 그랬었을 때.. 막 잘 따라주시는 거예요.. 단합이 잘 되어가지구.. 신기했어요.. (D67)*

## 3) 낯설고 힘든 과정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활동경험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낯설고 힘들지만 참 좋은 경험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목소리를 교정하는 발성연습, 발음교정을 위한 발음연습, 전문스튜디오에서의 녹음 과정 등은 신선하고 새로웠지만 너무 힘든 과정이었다. 잘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 주눅이 들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슬럼프도 겪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과 부담감에 신체화 증상까지 경험하지만, 낯설지만 참 좋은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근데 기억이 남는 거는 검정고무신..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한 게 기억에 남거든요.. 처음이어서 되게 신선했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I16)*

*그 워크숍 하는 거... 그..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가슴에 와 닿았을 때 부담감이 생겼거든요.. 잘 해 낼 수 있을까..(H49)*

## 3. 내 삶의 변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은 낙인과 편견에 대한 ‘이의제기(Protest)’,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Education)’, 정신장애인과 일반인들 간의 ‘사회적 접촉(Contact)’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접촉’ 전략이 다른 두 전략보다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된다(양지은, 2017). 이 전략에서는 정신장애인이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을 통해 일상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의 일상을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사회와 ‘불편하지 않은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다(김문근, 2019). ‘더빙 프로젝트’ 역시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통해 자기주장을 하고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접촉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 올해에는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은 UCC 영상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더빙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변화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자아가 더 단단해지고 긍정적으로 삶이 변화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과정을 ‘생각이 변하니 행동이 변한다’, ‘증상이 호전되다’, ‘자아가 단단해지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라는 4개의 하위주제와 14개의 의미단위로 분석하고, ‘내 삶의 변화’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 1) 생각이 변하니 행동이 변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결단력이 빨라지는 등 행동

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즉, 엘리스(Ellis, 1995)의 REBT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지, 정서,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신념체계가 변화함을 통해 정서와 행동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음... 회원들과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 사람들이 봐줄거고... 열심히 참여를 해야지 제가 이루고 싶은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B72)*

*근데 교육받으면서 규칙적인 삶을 살고 더빙을 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하루지만. 나에게는 교육준비도 하고 성우교육도 열심히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준비하려고 프린트 인쇄도 하고..(H52)*

## 2) 증상이 호전되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연구참여자들의 증상이 호전되거나, 이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질환의 발병 이전에 왕따나 집단따돌림을 비롯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 가족과의 역기능적 관계 등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발병 이후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이는 트라우마가 되어 주홍글씨처럼 정신장애인들에게 새겨져 있다. 그런데 성우교육을 하는 날에는 '증상이 좀 안 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증상도 좀 좋아졌어요.. 어.. 성우 교육하는 날 증상이 좀 안와요... 성우 교육할 때 증상이 오기는 와요.. 근데 덜 오지요..(H30)*

*수련회 온 거 같고 그러더라구요.. 수련회는 싫어*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애들 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원래 캠프를 안 좋아했는데 캠프 가면... 친해지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D55)*

## 3) 자아가 단단해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들 중 하나는 자아개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인 듯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려웠지만 그만큼 해낸 스스로를 뿌듯해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감과 자긍심이 높아지는 등 자아개념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뭐라도 내가 해야겠다.. 그런 자긍심 같은 게 내가 있어요 나 자신한테.. 나 자신한테 칭찬하고 싶어요. 자긍심.. 뭔가를 했다고...(C40)*

*어.. 자존감을 찾았다 해야 하나요.. (중략).. 정신장애인들이 성우 역할을 그만큼 잘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어.. 자신감도 있었습니까..(G24)*

## 4)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앞서 '생각이 변하니 행동이 변하다'에서 인지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에서는 행동적 측면을 좀 더 초점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긴장과 부담감 속에서도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서 노력한 결과 자신감이 생겼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다보니 어두운 성격이 밝아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재미도 느끼는 한편 책임감이 생기며 해야 할 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

*스파르타식으로 될 때까지.. 네.. 뭐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고 그랬어요.. 겨우 끝났어요 겨우...(I38)*

먼저 나서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표현이 적었던 제가... 이렇게 먼저 회원들에게 말을 하고 ... 또 제가 해야 할 일들도 하고.. 그런.. 그런 만큼 저에게 또 득이 되는 게 있구요..(G48)

#### 4.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 내고 싶은 마음

본 주제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욕구, ‘더빙 프로젝트’의 의미를 내면화하는 등 전반적인 변화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 내고 싶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 1)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다

참여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인식이 전환되고 있었다. 한편 다큐멘터리처럼 좀 더 심층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금은 동화나 런닝맨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어.. 더 나가서.. (중략) 그런.. 더빙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큐 쪽이나 장애인들을 알리는 그런..(B58)

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더 좋아진 것 같구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모두가 같은 사람 이니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G42)

#### 5. 가족이 되어가다

‘더빙 프로젝트’를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은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보기만 해도 반가운 관계를 만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들은 혼자 열 걸음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발씩 내딛는 걸음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가족 같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정현주, 2018). ‘가족이 되어가다’라는 주제에서는 ‘서로에게 친밀함이 더해지다’, ‘일상을 공유하며 가족이 되어가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 3개의 하위주제와 17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 1) 서로에게 친밀함이 더해지다

‘더빙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모인 회원들로 어색하고 불편한 채로 관계가 시작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제 이들은 보기만 해도 반가운 사람들이 된 것이다.

무지 어색했죠. 저 혼자 여기 발을 디터놓을 때.. 정말 어색하고 떨리고 사람들도 말이 없고.. (중략)..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하니까 조금 힘들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B45)

얘기 나누는 게 좋았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고기를 먹으면서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얘기 나누면서 서로 알게 되었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더빙하면서...(F25)

##### 2) 일상을 공유하며 가족이 되어가다

가족과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는 만성정신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회복을 돕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정신장애인들은 가족과 갈등 관계에 있으며, 본 연

구의 참여자들도 가족과 소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목적적인 활동이 아니라 캠프, 같이 장보기,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여흥을 즐기, 수다 떨기 등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공유하며 참여자들과 서로 믿고 힘을 주는 관계(서하진, 김정옥, 2009)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격려받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고(정현주, 2018), 이는 새로운 가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구요... 노래 부르고 밥 먹구... 밥 먹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카페 갈 때나.. 같이 모여 있으면 외로움이 덜 해 가지구.. 뭔가 일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냥 집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같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시간도 잘 가고...(D84)*

*인연이지요.. 인연.. 저 여기 다니면요.. 이 사람이 왔구나.. 인연이 보여요... 이 회원들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친척, 친구로 와줬구나.. 그런 인연이 느껴져요.(E55)*

### 3) 함께 성장하는 관계

'더빙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삶은 총체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믿음과 힘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더빙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조금 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조금 한 발 나아가는 것 같은...(B75)*

## 6. 나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주위 사람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환경 내에서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적인 관계경험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존중과 격려는 당사자들의 회복여정을 더욱 즐겁게 한다(정현주, 2018). 이런 의미에서 Y 정신재활시설의 정신건강전문가,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강사,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이웃과 가족의 존재는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나를 성장시키는 고마운 사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이웃',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 주는 가족'이라는 3개의 하위주제와 7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으며, '나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주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 1) 나를 성장시키는 고마운 사람

참여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며 보호해주는 정신건강전문가와 열정적으로 가르쳐주는 전문강사들을 자신들을 성장시키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당사자들은 지도하는 선생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저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저희들을 보호해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위해주시니까 위해주는 마음을 느끼구... (중략)... 맨날 느끼는 거지만.. 같이 함께 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A82)*

### 2)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이웃

연구참여자들은 커밍아웃 이후 거리를 두는 지역사회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챙겨주는 친구의 모습,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주변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힘을 얻고 있었다.

저번에 괜히 말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못나가니까 오히려 챙겨 주더라고요. 친구들이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뭐하고 지내냐 그러고. 챙겨줘서... (중략)... 친구가 고맙더라고요. 친구들이... (D131)

### 3)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 주는 가족

지지적이고 수용적이며 공감적인 태도를 가진 가족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이 지지를 보내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재활의 자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이 이해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연구참여자들도 또한 긍정적인 힘을 얻고 있었다.

TV에서 나오는 장애인광고를 보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찍은 광고였거든요. 삼촌께서 그 광고를 보시고 나에게 얘기해줬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더빙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거기서 삼촌 조언으로 자신감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H23)

## 7. 나의 꿈을 찾아가는 회복여행

지금까지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캠프, 산책, 같이 밥 먹기 등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보컬트레이닝이나 성우교육, 스튜디오 녹음 등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개인적으로는 삶이 변화하고 있었고, 참여자들 간에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신장애인들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당사자 간 상호작용이었으며, 나아가 정신건강전문가,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 전문강사, 그리고 지역사회 이웃들과 가족이 함께 하고 있었다. ‘더빙 프로젝트’의 경험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나의 꿈을 찾아가는 회복여행’이라고 범주화하였다. 이 주제에는 ‘내 삶의 변화와 선순환’, ‘낮설고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2개의 하위주제와 12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 1) 내 삶의 변화와 선순환

연구참여자들은 ‘더빙 프로젝트’를 통해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변화를 이루고, 이는 이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며 희망을 꿈꾸는 선순환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삶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으며, 참여자들 간에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 내면서 변화가 추동되는 과정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마운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다. 결국 ‘더빙 프로젝트’는 힘들었지만 다 같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개개인에게는 ‘나의 꿈을 찾아가는 회복여행’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죠. 같이 하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풍요로워졌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I22)

책임감이 또 생긴 거 같아요. 말은 바 최선을 다하는 거요.. 그 전에는 대화를 별로 못해 봤다가 새로 더빙으로 모임으로써 대화를 하게 되고. 더빙팀들이 사람들이 순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나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G54)

## 2) 낯설고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내 삶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삶을 더 풍요롭게 하며 희망이라는 새로운 변화들을 추동해내는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 '더빙 프로젝트' 참여경험은 참여자들에게 '낯설고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이는 저 깊은 무의식 속으로 꼭꼭 묻어두었던 나의 꿈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도전이었으며, 힘들지만 재미있는 그리고 행복한 경험이었다. 결국 '더빙 프로젝트'는 나의 회복을 앞당기는 '목소리 연기를 통한 자기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었던 기억이 남아요...(B15)*

*성우역할을 하는 거는... 음... 또 하나의 일이 아닐까.. 하고 싶었던.. 못 이뤄던 거를 그나마도 흥내 내려는 거.. 그게 아닐까요...(C133)*

*더빙 프로젝트는 그냥 한 마디로 딱 말해서 자기 꿈을 목소리로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울림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이거 한 번 해봐라...(B86)*

## IV. 논의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더빙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이들의 시각과 관점 아래 그 과정과 맥락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1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7개의 주제와 18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75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정신장애인들은 '더빙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적 자아인식과 자존감의 향상이라는 내면적인 변화에 더하여 참여자간 끈끈한 연대감을 쌓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전 과정은 정신장애인이 회복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더빙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다양하다. 마음 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소망들을 끄집어내어 발걸음을 내딛는 도전이기도 했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작은 희망이기도 했다. 우리도 사람이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즉, '더빙 프로젝트'는 연구참여자들이 못 다 이룬 꿈에 대한 도전의 의미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본 연구에서는 '못 다 이룬 꿈으로의 도전', '나를 사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2개의 하위주제로 분석하고, '더빙 프로젝트에 참여하다'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오디션을 보고 합격한 연구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보컬트레이닝, 발성연습, 성우교육, 스튜디오에서의 녹음과 같은 UCC 영상제작을 위한 훈련을 거치며 더빙작품의 캐릭터를 통해 감정을 간접체험하고 표현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 과정은 낯설고 힘든 과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평범하지만 다양한 일상의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같이 하기에 의미 있는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더빙 프로젝트'에서의 활동경험을 '전문가의 훈련으로 거듭나다', '같이 하기에 의미 있는 새로운 경험들', '낯설고 힘든 과정'이라는 3개의 하위주제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들'이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셋째,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통해 자기주장을 하고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

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접촉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인 ‘더빙 프로젝트’는 총 3개 년차 동안 진행되며, 본 연구는 2년차인 올해 실시된 것이다. ‘더빙 프로젝트’가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지를 개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한 결과, 참여자들의 자아가 단단해지고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의미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끝까지 노력하니 자신감이 솟다’, ‘생각이 변하니 행동이 변한다’, ‘증상이 호전되다’, ‘자아가 단단해지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라는 5개의 하위주제로 도출하고, ‘내 삶의 변화’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넷째, ‘더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은 점차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당사자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다. 이를 ‘내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를 깨닫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라는 2개의 하위주제로 분석하고, 이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다섯째, 쓸모없고 위험한 존재라는 사회의 낙인과 편견 속에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었던 연구참여자들은 ‘더빙 프로젝트’를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자체에서 외로움이 덜해지고 보기만 해도 반가운 관계를 만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가족과 같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서하진, 김정옥, 2009).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서로에게 친밀함이 더해지다’, ‘일상을 공유하며 가족이 되어가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는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가족이 되어가다’ 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여섯째,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는 연구참여자들 본

인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빙 프로젝트’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연구참여자들 곁에는 가장 먼저 Y 정신재활시설의 정신건강전문가,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 전문강사,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는 지역사회 이웃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가족들이 있었다. 이들은 연구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동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나를 성장시키는 고마운 사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이웃’,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 주는 가족’이라는 3개의 하위주제와 ‘나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주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더빙 프로젝트’는 어떤 맥락 속에서 경험되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더빙 프로젝트’는 ‘나의 꿈을 찾아가는 회복여행’으로, 이 여정은 때로는 힘들지만 재미있는 경험을,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때로는 편하고 재밌는 경험을 제공해주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의미들로 다가오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목소리 연기를 통한 자기회복’을 통해 내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들이 선순환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내 삶의 변화와 선순환’, ‘낯설고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2개의 하위주제와 ‘나의 꿈을 찾아가는 회복여행’이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사업 자체가 정신장애인에게 제한적이거나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재구축하고, 사회적 역할과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개선해 나가는데 유용함을 증명하고 있다(Tew et al., 2012). 이러한 긍정적인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정체성의 재구축은 정신장애인들의 회복에 중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Petty & Triolo, 1999).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적 활동

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들이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전문가들과의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자기개념의 형성과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심경순, 유숙, 2017). 나아가 예술 프로그램의 활용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적 역할 수행 도모에 유용하다(김근식, 나숙희, 2005, p.27; 한지연, 심경순, 2016; Hui & Stickley, 2010; Sapouna & Pamer, 2016). 따라서 사회적 편견과 낙인해소를 위해 본 연구에서처럼 다양한 예술적 방법을 활용하는 전략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심층면접 중반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이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면접에 임했지만, 그럼에도 연구참여자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된 비대면 면접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음성이 불명확하여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얼굴 표정이나 태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으로 연구참여자와뿐 아니라 프로젝트 실무자들(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전문가사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보강하여 해석을 위한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Y시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정신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시민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애니메이션이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미래사회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진보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사회적인 낙인의

대상이 되거나 정상적인 삶에서 멀어지지 않고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의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더 잘 소통하고 이해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문근 (2009). 가족의 정신장애인 가족외보호육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2, 5-40.
- 김문근 (2010).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이해와 극복방안.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7-157.
- 김문근 (2019). 영화제작을 통한 정신장애인 편견 개선 사례 연구. *사회복지연구*, 50(1), 5-34.
- 김근식, 나숙희 (2005). 노래를 매개로 한 집단활동이 재가 정신분열장애인의 음성증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2(2), 21-41.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에서의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요완, 정현주 (2019). 만성 정신장애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0(3), 153-188.
- 박영근, 백상수 (2019). 초등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구의 효과 분석: 메타분석 활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735-755.
- 박중호, 이현심 (2019).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대중매체 활용 방안 연구: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4), 250-263.
- 배은경, 안효자 (2016).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

- 의 기능 및 증상 요인과 회복의 관계. *사회과학 연구*, 42(2), 231-251.
- 보건복지부(2018). 2018 보건복지 통계연보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7082](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7082) 에서 검색
- 서하진, 김정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 성준모 (1997).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자각하는 낙인의 정도와 그 대처경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심경순, 유숙 (2017). 정신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가를 위한 당사자 문학자조모임의 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2), 87-111.
- 양지은 (2017). 청소년을 위한 정신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의 효과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인옥, 김선아 (2015).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경험 구조모형. *대한간호학회지*, 45(1), 97-106.
- 윤상훈, 이혜은 (2012). 정신장애인을 위한 미용치료 프로그램 “이미지-Up”.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0(1), 379-393.
- 이근희 (2014). 동료지원활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83-322.
- 이미아 (2020). 장애인식개선 UCC 제작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예비특수교사의 UCC 교육적 효용성 인식 변화. *통합교육연구*, 15(1), 113-131.
- 이민화, 서미경, 유숙 (2018). 정신장애인이 주도하는 접촉프로그램의 반낙인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70(1), 117-142.
- 이선영 (2004). 생태체계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지은, 이성규, 전준희 (2018). 정신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6(4), 35-62.
- 정재원, 김성재 (2017). 초기 조현병 환자가 경험한 생활사건: 통합적 고찰. *스트레스*, 25(3), 170-178.
- 정현주(2018). 정신장애인의 회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임파워먼트 실천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4(2), 33-55.
- 한경례, 김성완, 이무석 (2002). 정신분열병 환자의 낙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6), 1185-1196.
- 한지연, 심경순 (2016). 지역사회 문화예술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4(3), 296-324.
- Anderson, K., & Austin, J. (2012). Effects of a documentary film on public stigma related to mental illness among genetic counselors. *Journal of Genetic Counseling*, 21, 573-581.
- Angermeyer, M. C., Schelze, B., & Dietrich, S. (2003). Courtesy stigma.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8, 593-602.
- Barry, K. L., Zeber, J. E., Blow, F. C., & Valestein, M. (2003). Effect of strengths model versus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model on participant outcomes and utilization: Two-year follow-up.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6(3), 268-277.
- Bugay, H., & Clift, S. (2010). Arts on prescription: A review of practice in the UK. *Perspective in Public Health*, 130(6), 277-281.
- Boyatzis, R. E. (1998). *Transforming Qualitative Information: Thematic Analysis and Code Development*(1st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shing
- Burhouse, A., Rowland, M., Niman, H. M., Abraham, D., Collins, E., Matthews, H., Denney, J., & Ryland, H. (2015). Coaching for

- recovery: A quality improvement project in mental healthcare. *BMJ Quality Improvement Reports*, 4 DOI: 10.1136/bmjquality.u206576.w2641
- Cohen, J., & Struening, E. L. (1962).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in the personnel of two large mental health hospita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4(5), 349-360.
- Chamberlin, J. (1997). A working definition of empowerment.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0(4), 43-46.
- Charbonneau, M. (2007). Stigma and discrimination - as expressed b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port prepared for Mood Disorders Society of Canada.
- Cook, T. M., & Wang, J. L. (2011). Causation beliefs and stigma against depression: Results from a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3, 86-92.
- Corbiere, M., Samson, E., Villotti, P., & Pelletier, J. (2012). Strategies to fight stigma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Perspectives from different stakeholders.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2012, 1-10. DOI: 10.1100/2012/516358
- Corker, E., Hamilton, S., Robinson, E., Cotney, J., Pinfold, V., Rose, D., & Henderson, C. (2016). Viewpoint survey of mental health service users'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in England 2008-2014.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34(S446), 6-13.
- Corrigan, P. (2000). Mental health stigma as social attribu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methods and attitude chang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7(1), 48-67.
- Corrigan, P., & Matthews, A. (2003). Stigma and disclosure: implications for coming out of the closet. *Journal of Mental Health*, 12(3), 235-248.
- Corrigan, P. W., & Kleinlein, P. (2005). The impact of mental illness stigma. In P. W. Corrigan(Eds.), *On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earch and social change*(p. 11-4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 10.1037/10887-000
- Corrigan, P. W., & Penn, D. (1999). Lesson from social psychology on discrediting psychiatric Stigma. *American Psychologist*, 54, 765-776.
- Corrigan, P. W., & Watson, A. C. (2002). Understanding the impact of stigma on people with mental illness. *World Psychiatry*, 1(1), 16-20.
- Crowe, K., & Taylor, K. (2006). The recovery approach: The desired service user empowered process. In L. Sapouna & P. Herrmann(Eds.), *Knowledge in Mental Health: Reclaiming the Social*(1st ed, pp. 57-67). NY: Nova Science.
- Deegan, P. E. (1988). Recovery: The Lived Experience of Rehabilitation.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1(4), 11-19.
- Dickerson, J. W. T. (1998). Food, nutrition, anti-social behavior and criminality. *Journal of Royal Society Health*, 118(4), 224-226.
- Ellis, A. (1995).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In R. J. Corsini & D. Wedding(Eds.), *Current Psychotherapies*(5th ed., pp. 162-196). Itasca, IL: F. E. Peacock.
- Evans, J., & Repper, J. (2000). Employment, social inclus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7(1), 15-24.
- Forrester-Jones, R., & Barnes, A. (2008). On being a girlfriend not a patient: The quest for an acceptable identity amongst people with a severe mental illness. *Journal of Mental*

- Health, 17*(2), 153-172.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1st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oldie, I. (2007). *Arts, creativity and mental health initiative: A participatory arts self-evaluation approach project report*. Glasgow: Scottish Arts Council.
- Hacking, S., Secker, J., Spandler, H., Kent, L., & Shenton, J. (2008). Evaluating the impact of participatory art projects for people with mental health needs.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6*(6), 638-648.
- Hocking, B. (2003). Reducing mental illness stigma and discrimination—Everybody’s business.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8*, 47-48.
- 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15, Dec). *Health Surveys for England, 2014, Chapter 2: Mental health problems*. England.
- Hui, A., & Stickley, T. (2010). Artistic activities can improve patients’ self-esteem. *Mental Health Practice, 14*(4), 30-32.
- Huggett, C., Vritel, M. D., Awenat, Y. F., Fleming, P., Wilkes, S., Williams, S., & Haddock, G. (2018). A qualitative study: Experiences of stigma by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91*(3), 380-397.
- Jones, L. V., Hardiman, E. R., & Carpenter, J. (2007). Mental health recovery: A strengths-based approach to culturally relevant services for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5*, 251-269.
- Kleim, B., Vauth, R., Adams, G., Stieglitz, R., Hayward, P., & Corrigan, P. (2008). Perceived stigma predicts low self-efficacy and poor coping in schizophrenia. *Journal of Mental Health, 17*(5), 482-491.
- Lauber, C. (2008).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A critical appraisal. *Epidemiologia e Psichiatria Sociale, 17*(1), 10-13.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1st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shing
- Link B., Cullen F., Streuning E., Shrout, P., & Dohrenwend, B. (1989). A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An empirical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400-423.
- Link B., & Phelan J.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Maccini, M. (2007). The role of self-efficacy in recovery from serious psychiatric disabilities. *Qualitative Social Work, 6*(1), 49-74.
- Neff, J. A., & Husaini, B. A. (1985). Lay image of mental illness: Social knowledge and tolerance of the mentally ill.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1), 3-12.
- Nelson, G., Lord, J., & Ochocka, J. (2001). Empowerment and mental health in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2), 125-142.
- Padgett, D. K. (2005).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광주: 나눔. (원저 1998년 출판)
- Parker, R., & Aggleton, P. (2002). *HIV and AIDS-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implications for action*. Rio de Janeiro: Associação Brasileira Interdisciplinar de Aids.

- Parr, H. (2005). *The arts and mental health: creativity and social inclusion*. University of Dundee. Retrieved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Hester-Parr-2/publication/228965564\\_The\\_arts\\_and\\_mental\\_health\\_creativity\\_and\\_inclusion/links/54ddcc650cf2814662eb6942/The-arts-and-mental-health-creativity-and-inclusion.pdf](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Hester-Parr-2/publication/228965564_The_arts_and_mental_health_creativity_and_inclusion/links/54ddcc650cf2814662eb6942/The-arts-and-mental-health-creativity-and-inclusion.pdf)
- Perlick, A. D., Rosenheck, R. A., Clakin, J. F., Sirey, J. A., Sahai, J., Stuenkel, E. L., & Link, B. (2001). Adverse effects of perceived stigma on social adaptations of persons diagnosed with bipolar affective disorder. *Psychiatric Services, 52*(12), 1627-1632.
- Petty, D., & Triolo, A. M. (1999). Illness as evolution: The search for identity and meaning in the recovery proc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2*(3), 255-262.
- Phelan, J., Link, B., Stueve, A., & Pescosolido, B. (2000). Public conception of mental illness in 1950 and 1996: What is mental illness and is it to be feared?.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2), 188-207.
- Purvis, B., Brandt, R., Rouse, C., Vera, W., & Range, L. M. (1988). Students' attitudes toward hypothetical chronically and acutely mentally and physically ill individuals. *Psychological Reports, 62*(2), 627-630.
- Ryan, P., Ramon, S., & Greacen, T. (Ed.) (2012). *Empowerment, Lifelong Learning and Recovery Mental Health: Towards a New Paradigm* (1st ed.).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Riskind, J. H., & Wahl, O. (1992). Moving makes it worse: The role of rapid movement in fear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1*(4), 349-364.
- Rutman, I. D. (1994). How psychiatric disability expresses itself as a barrier to employment.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7*(3), 15-35.
- Sadow, D., & Ryder, M. (2008). Reducing stigmatizing attitudes held by future health professionals: the person is the message. *Psychological Services, 5*(4), 362-372.
- Sapouna, L., & Pamer, E. (2016).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the arts in mental health recovery—an Irish research project. *Art and Health, 8*(1), 1-12.
- Sayce, L. (2003). Beyond good intentions. Making anti-discrimination strategies. *Disability & Society, 18*(5), 625-642.
- Smith, M. K. (2000). Recovery from a severe psychiatric disability: Finding of a qualitative study.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4*(2), 149-158.
- Slazer, M. S. (1997). Consumer empowerment in mental health organizations: concept, benefits and impediments.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24*, 425-434.
- Snape, D., & Spencer, L. (2003). The found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In J. Ritchie & J. Lewis (Eds.),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pp. 1-23). Thousand Oaks, CA: Sage Publishing
- Stern, S., Doolan, M., Staples, E., Szmukler, G. L., & Eisler, I. (1999). Disruption and reconstruction: narrative insights into the experience of family members caring for a relative diagnosed with serious mental illness. *Family Process, 38*(3), 353-369.
- Stromwall, L. K., & Herdle, D. (2003). Psychiatric Rehabilitation: An empowerment-based ap-

- proach to mental health services. *Health and Social Work*, 28(3), 206-213.
- Stuart, H. (2004, Feb). *Stigma and Work* [Article in Healthcare Papers]. Retrieved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Heather-Stuart/publication/7906884\\_Stigma\\_and\\_Work/links/5706574208aea3d280210fbc/Stigma-and-Work.pdf](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Heather-Stuart/publication/7906884_Stigma_and_Work/links/5706574208aea3d280210fbc/Stigma-and-Work.pdf)
- Stuart, H. (2005). Fight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is fighting for mental health. *Can Public Policy*, 31, 21-28. Retrived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Heather-Stuart/publication/4749854\\_Fighting\\_Stigma\\_and\\_Discrimination\\_Is\\_Fighting\\_for\\_Mental\\_Health/links/548893800cf289302e30b5a4/Fighting-Stigma-and-Discrimination-Is-Fighting-for-Mental-Health.pdf](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Heather-Stuart/publication/4749854_Fighting_Stigma_and_Discrimination_Is_Fighting_for_Mental_Health/links/548893800cf289302e30b5a4/Fighting-Stigma-and-Discrimination-Is-Fighting-for-Mental-Health.pdf).
- Stuart, H. (2008). Fighting the stigma caused by mental disorders: Past perspectives, present activities, and future directions. *World Psychiatry*, 7(3), 185-188.
- Taylor, S. M., & Dear, M. J. (1981). Scaling community attitudes toward disability groups. *Schizophrenia Bulletin*, 7, 225-240.
- Tew, J., Ramon, S., Slade, M., Bird, V., Melton, J., & Boutillier, C. (2012). Social factors and recovery from mental health difficulties: A review of the eviden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2(3), 443-460.
- Tyler, I., & Slater, T. (2018). Rethinking the sociology of stigma. *The Sociological Review*, 66(4), 721-743.
- Wahl, O. F. (1999). Mental health consumers' experience of stigma. *Schizophrenia Bulletin*, 25(3), 467-478.
- Watson, A. C., Corrigan, P., Larson, J. E., & Sells, M. (2007). Self-stigma in people with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Bulletin*, 33(6), 1312-1318.
- Yanos, P. T., Roe, D., Markus, K., & Lysaker, P. H. (2008). Pathways between internalized stigma and outcomes related to recovery in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Psychiatric services*, 59(12), 1437-1442.

투고일자 : 2021. 05. 31.

심사일자 : 2021. 06. 11.

게재확정일자 : 2021. 06. 30.

# A Study on Experiences of ‘Dubbing Project’ by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 “Searching for My Voice” –

HyunJu Chung

EunJoo Lee

Seoul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and change of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participating in a two and half-year improved program of mental disability awareness, ‘Dubbing Project’ through their view and language, and to explore the detailed processes and contexts of their experience. A total of 10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participated in this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described the experience of the project as a main theme of ‘a recovery journey to search for my dream’ and achieved positive self-esteem, enhancement of self-respect, and increased connectedness among participants through the process of actively making their voices against social stigma.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ir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Dubbing Project’ was the recovery process toward the future in their life, enabling them to identify positive and valuable social roles.

Keywords: *Social Stigma, Social Role Valorization, ‘Dubbing Project’, Generic Qualitative Research*

## 부 록

### 분석결과

주제(7)	하위주제(18)	의미단위(76)
더빙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못 다 이룬 꿈으로의 도전	흥미로운 일
		인정을 받음
		오디션 합격에 대해 자부심 느낌
		희망이 생김
		성우라는 직업에 도전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자립의 의지가 생김
		나도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좋아하던 성우에 대한 동경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나를 사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	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
		전문가에게 배우는 즐거움
		연습의 결실로 뿌듯함을 느낌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
		‘같이 뭉치는’ 새로운 경험들
		이울림의 즐거움
		하나 되는 신기한 느낌
		낮설고 떨리지만 신선한 경험
		힘든 과정을 거치다
		자꾸 떨어지는 자신감
내 삶의 변화	낮설고 힘든 과정	마음의 부담
		긴장감
		긴장으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남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뀜
		생각이 변하니 행동이 변한다.
		결단력이 빨라짐
		생활습관의 변화
		증상이 호전되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람들과 친해짐
		자아가 단단해지다.
보람과 성취감		
자존감이 높아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성격이 밝아짐
		편안함
		적극적으로 바뀜

(계속)

주제(7)	하위주제(18)	의미단위(76)	
내 삶의 변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책임감이 더 생기다,	
		포기하지 않고 끝을 냄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 내고 싶은 마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다	좋은 결과로 용기를 가짐	
		노래로 나오는 목소리를 찾다	
가족이 되어가다	서로에게 친밀함이 더해지다.	더빙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를 알리는 기회라고 인식함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	
		우리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채로 관계가 시작됨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체가 좋음	
	일상을 공유하며 가족이 되어가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감	
		이름을 불러주는 사이, 보기만 해도 반가운 사람들	
		단합하며 친해지기	
		일상을 공유하며 가까워짐	
함께 성장하는 관계	서로의 장점을 바라봄		
	서로 간에 믿음이 생김		
	서로 힘을 주는 관계		
	마음이 통하고 정이 오고 감		
	가족같은 인연		
나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주위 사람들	나를 성장시키는 고마운 사람	서로 코치하며 호흡을 맞춤	
		배려하는 모습을 배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이웃	한 발 한 발 다함께 성장해가는 과정	
		조금씩 나아지는 관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주는 가족	소속감	
		우리와 함께하는 위커	
	나의 꿈을 찾아 가는 회복여행	내 삶의 변화와 선순환	열정적으로 챙겨주는 마음을 느낌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선생님
			커밍아웃한 후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봄
			친구들의 응원과 고마움
		가족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를 알게 됨	
		이해해 주는 가족	
		총체적인 변화와 선순환	
		내 삶이 풍요로워짐	
		희망을 꿈꾸다	

(계속)

주제(7)	하위주제(18)	의미단위(76)
나의 꿈을 찾아 가는 회복여행	낮설고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	자기 꿈을 목소리로 내는 것
		우리도 할 수 있다
		못 다 이룬 꿈에의 도전
		고마움
		힘들지만 재미있음
		즐겁고 행복한 경험
		편하고 재밌는 경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부전공
		목소리 연기를 통한 자기 회복